

< 기자회견 자료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 시 : 1996년 8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세실 레스토랑 ( T:738-1484 )

□ 순 서 :

사 회 : 신혜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1) 개회
- (2) 범국민운동본부 구성단체 및 참석자 소개
- (3)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구성 취지문 발표
- (4)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 경과보고
- (5)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조직 체계 및 사업계획 발표
- (6) 질의응답
- (7) 폐회

8.22 8:20. → 이후 8:26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가정법률상담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아동학대예방협회,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한국프로듀서연합회, 환경운동연합 (8월 22일 현재)

간사단체 : 여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가톨릭여성의심자리, 경남여성회, 대구여성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부설 가족과성상담소)

9월 22일 8:26

# 1. 구성단체 소개

## (1) 참가단체 - 8월 22일 현재

- 가정법률상담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 아동학대예방협회
-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연대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인의전화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한국프로듀서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2) 간사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가톨릭여성의심자리, 경남여성회, 대구여성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부설 가족과성상담소)

## (3) 특별회원

## 2.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구성 취지문

박영순 변호사

매년 5월을 가정의달로 선정해 가정이 이 사회의 기본공동체임을 강조해 오고 있지만, 최근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해 온 사위를 살해한 이상희 할머니 사건이나, 11시간 동안이나 남편에게 두들겨 맞다가 끝내 숨지고 만 마산의 구순남씨 사건 등은 가정폭력의 문제가 가족공동체를 파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는 신체적인 학대가 죽음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하고(울산 정순호 사건, 마산 구순남 사건), 지속적인 학대에 못이긴 피해 여성이(이순심, 김명희 사건) 결국 궁지에 몰려 구타하는 남편을 살해한다든지 그 가족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양상(전경진, 이상희 할머니 사건)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정을 가부장 일인의 지배에 대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복종이라는 형태로 이해하여 가정폭력(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을 가정내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어, 피해자들은 인권의 시각지대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은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폭력은 아동폭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이 폭력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구타남편의 53.1%가 어머니가 구타당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구타습관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내 폭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집안문제라는 이유로 방관하는 사회의 무관심과 폭력행위를 신고해도 가정 내 부부싸움 정도로 여기고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문제가 살인 사건을 부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폭력이 당연시되고 가부장제 가치관이 온존되면서 사회적인 약자층인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가정에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치료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문제를 개별가정의 문제로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부터 변화시켜 사회구성원간의 연대 책임의식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에 대한 홍보와 설득작업을 전제로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치료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 3.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 경과보고

####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제기

지난 4년간 가정폭력 관련 자살·살인사건이 40여건에 이르는 등 가정폭력 문제는 이제 단순한 가정내 불화를 넘어 죽음을 부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95년 한해동안 가정폭력 문제를 상담하는 한국여성의전화 상담건수 15,390건중 구타·홍기 사용 등 가정내 폭력문제 상담이 3,254건으로 21.1%에 달한다고 집계된 바 있다.

특히 94년 1월 20여년간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이순심씨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순간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한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 (2) 여론화 및 법제정 추진을 위한 지역별 연대활동

한국여성의전화 등 관련 전문단체들은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론활동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을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 1994. 5.~ 한국여성의전화
  - 가정폭력 추방주간 행사(5. 6.~ 5. 13.)  
: 사진전, 영화제, 공청회'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
- 1994. 5.~ 15개 여성단체,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 결성

#### (3) 법률시안 마련을 위한 활동 및 지역별 운동본부 구성

지난 5월 발생한 이상희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안으로 여성단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관련 단체들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시안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지역별로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자로 뒤바뀐 피해자 구명활동 및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1996. 5. 15.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 가톨릭여성의쉼자리, 경남여성회, 대구여성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아동학대예방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노인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부설 가족과 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단체
- 1996. 5. 16. 한국여성의전화
  - 이상희 할머니 석방을 위한 긴급공청회
- 1996. 6.~ 한국여성단체연합
  - 가정폭력방지법률 시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3회 개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김제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현 성심여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배근 유니세프 조정관, 홍강의 서울대 소아정신과 의사, 이종걸 변호사, 이찬진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 1996. 5.~ 8. 8월 22일 현재 경기도, 인천시, 성남, 울산, 부산, 청주, 경남, 광주전남, 제주 등지에서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들로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1996. 8.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범국민운동본부구성 의 필요성 및 방식, 사업계획 등에 합의함.

#### 4.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조직체계 및 사업계획

##### (1) 조직체계

- 1) 교 문 : 각계 원로로 구성
- 2) 공동대표 : 참가단체 대표 *4-602*
- 3) 집행위원회 : 각 단체 집행책임자 파견
- 4) 집행위원장 : 신혜수(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회장)
- 5) 간사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 (2) 사업계획 *10월 2일 11시 10분*

-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9.1 - 9.10) *20*
  - 대국민 홍보물 1종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배포
  - 참가단체 별 회원서명
  - 전국 동시다발 가두서명 (9월 2째 주)
- 2)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
  - 일시 및 장소 : 9월 19일(목)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 목적 :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법안 마련
  - 대상 : 각 정당, 정부, 여성단체, 사회단체, 경찰 등
  - 내용 :
    - \* 주제발표 1 : 가정폭력의 현황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
    - 주제발표 2 :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설명
    - \* 토 론 : 각 정당 법사위원
- 3)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청원 (9월말)
- 4) 가정폭력방지법안 지지 천인 서명(사회복지학계,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여성계)
  - 법안 청원 후 법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 여론 조성 *→ 231318*
- 5) 각 지역 운동본부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엽서보내기 운동 전개 (10월 중)
  - \* - 현재 9개 지역에 결성되어 있는 지역운동본부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엽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 6) 가정폭력 추방 및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걷기대회(10. 5)
  - 일시 및 장소 : 10월 5일 (토) 오후 2시, 장소는 미정
  - 내용 : 가정폭력 실태 슬라이드 상영 '아주먼 내일' (한국여성의전화 제작)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증언  
문화행사  
걷기대회
- 7) 소책자발간
  - 여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제작
  - 일시 : 9월 중순